

	<h1>보도자료</h1>	2022. 1. 19.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49 -
 “어르신들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 발표

- 201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처음 포함된 임플란트, 현행 기준 만 65세 이상에 2개 적용
- 건강보험 적용 연령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은 4개로 늘려,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에도 임플란트 확대 적용 등 공약 ... 이 후보, 국민 건강한 삶 위해 ‘앞장서겠다’ 포부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4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음식의 원활한 섭취가 노년층의 건강 문제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플란트 보장 확대를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더 많은 국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해야한다” 며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치아 임플란트는 주요 건강보험 정책

평가 2위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다. 상실된 치아 및 씹는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그 개수도 2개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 후보는 현행 제도의 연령 및 개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높은 삶의 질 보장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가 확대되면 비용 문제 등으로 임플란트를 고민하던 노년층의 진입장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틀니는 되지만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던 무치악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오래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며, “치아 임플란트 보장 확대는 ‘기본’을 충족시킬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평균 치아 개수는 18개 수준으로 음식을 씹는 능력(저작[咀嚼] 능력)을 위한 20개 기준에서 2개가 부족한 수준이다.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한 사람도 전체 대비 56.6%로 절반 수준이다.

치아 상실은 음식을 씹는 저작능력을 저하시켜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작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좌우 1쌍, 즉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 설명자료

(1) 저작 불편 호소율 및 20개 이상 치아 상실률 추이

- 만 65세 이상의 현존 자연치아 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18개 수준임.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이 57%로 65세 이상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만 65세 이상 기준)

연 도	현존 자연치아 수 (단위 : 개)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단위 : %)		
	계	남	여	계	남	여
2009	15.7	16.7	15.1	-	-	-
2010	16.0	16.1	16.0	46.9	47.3	46.6
2011	16.2	17.4	15.3	45.8	50.5	42.6
2012	16.3	17.7	15.4	46.6	53.9	41.5
2013	16.4	16.8	16.1	47.8	48.9	47.1
2014	17.4	17.4	17.3	50.5	51.7	49.6
2015	17.5	17.3	17.6	54.7	55.5	54.2
2016	17.6	17.5	17.7	53.3	52.8	53.7
2017						
2018						
2019	18.1	17.8	18.4	56.6	54.4	58.5

* 출처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주 : 2016년~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검진 결과는 3년 자료를 통합하여 발표함.

(2)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용

■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요

- 치아 임플란트는 2014년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었음.
 -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생 2개(대구치만 가능) 적용. 이후 점차 연령이 확대되었고, 2018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됨.

시기	내용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치아 임플란트 급여 적용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 적용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 적용
2018년 7월	치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0%에서 30%로 인하 (건강보험 대상 기준)

■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용

-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용자 수는 한 해 150만 명 수준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금액(요양급여비용 + 본인부담금)은 약 9,404억 원 수준.
- 건강보험 소요 재정은 약 6,500억 원 수준임.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소분류통계
 주 : 환자 수는 임플란트 시술 1~3단계를 각각 받은 수를 중복으로 산출함.

<환자 특성별 치아 임플란트 이용 현황 :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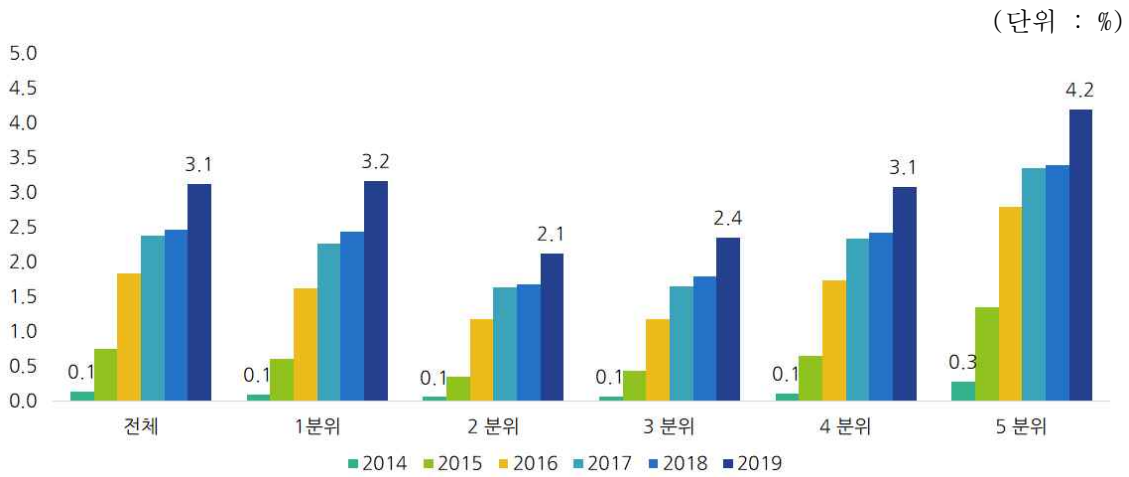
구분		전체	
		환자수 (단위 : 명)	진료금액 (단위 : 천원)
연령별	65-69세	753,010	451,748,891
	70-74세	414,032	247,770,901
	75-79세	257,462	155,586,718
	80세이상	138,970	85,314,644
요양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6,439	3,662,219
	종합병원	29,337	16,576,271
	병원급	89,345	56,949,392
	의원급	1,435,722	863,233,273
시도별	서울	383,012	226,517,141
	부산	116,248	71,114,670
	인천	68,788	41,124,397
	대구	80,661	48,909,931
	광주	51,855	31,346,575
	대전	50,104	30,147,909
	울산	26,411	16,302,704

구분		전체	
		환자수 (단위 : 명)	진료금액 (단위 : 천원)
	경기	298,670	176,587,927
	강원	47,002	28,754,027
	충북	43,940	26,922,570
	충남	65,287	39,730,883
	전북	71,392	43,477,588
	전남	68,810	42,538,667
	경북	75,152	46,618,544
	경남	89,716	55,704,305
	제주	19,135	11,544,407
	세종	5,114	3,078,910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질병소분류통계

(3) 소득수준별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용률 차이.

- 소득수준별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이용률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DB 분석

(4)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급여 확대 예산 추계(안)

□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 (2021년 대비)

(단위 : 억원)

추가 건강보험 재정(2021년 대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평균
65세 이상/임플란트 2개 (현행유지)	-363	-307	-153	87	366	-370	-74
(1) 65세 이상/임플란트 4개 (2개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 본인부담율 50% 적용)	1,903	4,467	3,212	5,280	4,710	19,572	3,914
(2) 60~64세/임플란트 2개 (2개 본인부담률 30%, 64세[22]→63세→62세→61세→60세[26])	119	568	634	1,488	1,863	4,672	934
(3) 무치약자 임플란트 급여 확대	재정 부담 크지 않을 것						

*치아의료정책연구원(2022.01.10.) 자료 재구성

- 임플란트 개수는 2개 유지,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확대(본인부담율 30%) ⇒ 2022년 건강보험 재정 약 119억 원, 5년 평균 934억원 추가 소요
-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2개를 4개로 확대(2개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 50% 적용) ⇒ 2022년 건강보험 재정 약 1,902억 원, 5년 평균 3914억원 추가 소요
- 첫째(2022년) 추가 부담은 전년 대비 2,022억원으로 예상됨

(5) 기타 : 무치약 임플란트 및 틀니 적용 확대(연령 65 → 60세)

- 현재 보건복지부가 무치약(치아가 전혀없는 사람)자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을 검토 중임
- 틀니 적용 확대(연령 인하)의 경우 예산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보건복지부)

□ Q&A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관련 Q&A

Q1.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가 꼭 필요한가요?

☞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음식을 씹는 저작(咀嚼) 기능 개선을 위해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65세 이상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저작활동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며, 더불어 저작활동은 치매를 비롯한 전신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실치아를 적절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남아 있는 치아들의 유지에도 유리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Q2.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 2022년부터 적용할 경우 추가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에 비해 2,022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1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낮출 경우 5년 동안 연평균 93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대 5년 먼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애 총 지원받는 임플란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 재정 부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6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4개로 확대할 경우 연평균 3,914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이른 나이에 상실치아를 빠르게 회복하면 다른 치아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 효과는 더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더불어 저작기능 회복으로 다른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감소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즉 치아 임플란트 대상 연령 확대에 의한 재정 소요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Q3. 치아 임플란트 대구치(큰 어금니)만 보장이 되나요?

☞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대구치에 식립이 불가능할 경우 전치부(앞니)에도 식립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는 치아 임플란트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씹는 기능에 가장 적합한 대구치(큰 어금니)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상태에 따라 대구치에 식립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의 저작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치부에도 식립이 가능합니다.